



\*이 글은 사업회가 진행한 제1회 민주주의 UCC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글입니다. 제1회 민주주의 UCC 공모전 수상작들은 <http://civicedu.tistory.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 6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호권

몇 년 전 남들보다 조금 늦게 교생실습을 하면서 학교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었다. 아르바이트와 이런저런 시험 준비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교생을 가게 되었는데 8년 만에 가본 고등학교는 내가 다니던 시절에서 바뀐 것이라고는 교실마다 설치된 에어컨과 대형평면TV뿐이었다. 두발에 대한 규제나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되는 보충 학습과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까지 90년대 후반의 고등학교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졸업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학교에서는 더 놀랐다. 2000년대 한참을 지났는데 학교는 여전히 80년대였다. 학생들은 지도 편달의 대상일 뿐이었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다. 개인 교사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있었고, 아이들을 다르게 지도하고 싶은 분들도 있었지만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 신입교사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다.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단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험생으로만 보아야한다는 것! 분명히 10대엔 내가 고민했던 일들, 내가 아파했던 일들인데 입장이 바뀌어서 교사가 된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감정따윈 버리고 공부나 하라고 뉘달해야 한다는 게 참 슬프고 힘들었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개교 6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교지 편집부는 2008년의 고등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전교생이었고, 이성문제부터 현안 사회문제까지 다채로운 범위를 아우르는 재밌는 설문 조사였다. 수 백 명의 응답지를 일일이 정리하던 7명의 교지편집부원들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모여 설문지의 통계를 작성했다.

자료를 분석한 뒤에 교지에 실릴 원고를 작성해서 아이들이 교무실로 가져왔을 때, 담당선생님을 비롯해서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은 크게 놀랐다. 우리 학교 아이들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항목들도 많았지만 교사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은 보충수업에 대한 반대가 86%였고, 자율학습에 대한 반대는 무려 98%였다는 점이었다. 98%라는 전교생 1030여명 가운데 20여명을 제외한 학생 모두가 싫어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이 조사 결과를 과연 교지에 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교사회회가 열렸고,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신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소수의 교사들은 그래도 이미 실시한 조사 결과이니 교지에 신자고 했고, 오랜 회의 끝에 그냥 조사 결과 내용만을 실기로 하고, 편집부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도 교사들 못지않게 놀랐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율학습이

줄어들 것도 아니고, 조사 결과가 씩씩하기만 하다는 게 아이들의 분위기였다.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영상공모전에서 수상 하면서 북유럽의 학교에 다녀올 일이 있었던 2학년 여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아이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여과없는 동영상은 통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고, 블로그에는 아이들이 바라는 자율학습시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 자율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자율학습도 수업시간처럼 쉬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딱딱 맞춰야 하나’, ‘모르는 것은 친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하고 쥐죽은 듯 있어야 하는 게 싫다’, 블로그가 터져나갈 듯이 늘어나는 의견들을 선생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영상동아리의 두 학생과 편집위원, 학생회 임원이 주축이 되어서 아이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학교에 공개적으로 자율학습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제서야 60주년 기념 교지 이후에 아이들이 꾸준히 블로그와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음을 학교 측에서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무슨 큰 일이라도 저지른 양 학교 측에서는 난리가 났고, 주동자를 처벌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한다는 강경한 의견부터 아이들의 말이라도 들어보자는 의견까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일처럼 아이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서 언론에 알려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불멘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에게 전화가 빗발쳤고, 데모(?)하는 아이들은 되

학시키라고 학교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는 학부모도 있었다. 이렇게 어른들은 난리가 났는데 정작 일을 시작한 아이들은 침착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일대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말이 어느 정도 통할 테니 우선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임용된 지 몇 년 안 된 나도 거기에 뽑혀서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과 어색하게 교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굳은 얼굴로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고 있는 선생님들과 다르게 아이들은 참 천연덕스러웠다. 아이들의 의견은 간단했다.

### “선생님 저희는 진짜 자율학습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은 참 쉬웠다. 고등학교 1~2학년은 10시까지, 3학년은 11시까지 3년간 매일같이 자율학습을 하고 방학 때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싫어할까 궁금했단다. 그래서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단다.

아이들의 의견은 정말 다양했다. 그냥 싫다부터, 공부하기 싫은 날도 무조건 해야한다는 게 싫다, 도서관에서 하고 싶다, 공부 잘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다, 아이들이 블로그에 남긴 댓글들을 출력한 수 십 장의 종이들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은 나와는 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너희가 말하는 게 먹힐 것 같아?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 모두 찬성 안할 거야. 너희들의 투쟁이 쓸모없는 알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너희가 고쳐봐!”

나는 제법 심각하게 말했는데 아이들은 뭐가 그리도 우스운지 웃음을 터뜨렸다.



**“투쟁이요? 선생님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투쟁이 아니라 저희가 시도하는 대화라구요. 대화! 공교육이라는 곳과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딱 막힌 두 벽을 향해서 시도하는 대화라구요. 저희는 그 벽을 부수는 투쟁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1000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구요.”**

반항, 투쟁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정말 재미있는 울림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아이들이 무슨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화(?)가 하고 싶었다는 것으로 일은 어정쩡하게 결말지어졌고 관계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도 흐지부지 되었다.



이대로 그냥 일이 끝났으면 했지만 아이들은 그 전에 자신들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개설된 블로그를 통해서 스터디 모임을 모집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율학습이 뭔지 보여주자는 것이 아이들의 주장이었고, 호기심에, 혹은 친구의 설득으로, 심심해서, 공부하려고 등 다양한 이유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생겼다. 2008년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은 스터디 모임을 조직하고, 그날그날의 학습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자율적인 의사로 참여한 학생이 떠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물론 욕설을 배설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반면에 건전한 의견을 다는 아이들과 참여해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늘어갔다.

중간고사가 끝나고도 아이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율적인 학습 참가원들을 모집해서 다양한 실험을 계속해나갔다. 그런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교칙 위반이 아니었기에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말고사 기간에도 아이들의 실험은 계속되었고,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자 참가자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새로운 포스팅이 블로그에 떴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 실험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중하위권 학생들만 참여한 가운데에도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눈에 띄었다. 중하위권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공부하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다.

아이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학교 측에 대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설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위권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얼마나 큰 학습 능력의 향상이 있는지, 어설피지만 진실한 이야기를 전한 뒤에 아이들은 말했다.

**“공부도 재밌는 실험이고 놀이예요. 가뉘든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선생님”**

2009년이 되어서 그 사건의 주축이었던 아이들은 고3이 되었고, 겨울 방학 때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던 고1 아이들은 고2가 되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혹은 방학 기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학교에 나와서 스터디 모임을 한다니 학부모도 학교도 막을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은 그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학교와 기존 권력에 반항한다는데 재미를 느꼈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보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같까 했던 그 스터디 모임은 2009년에는 총 8개조 75명까지 늘었다. 중간 중간 좌초의 위험이 있었지만 아이들 스스로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물리력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방법은 처음부터 대화였다. 초창기 구성원인 여학생의 불

성실한 참여도가 저조한 것을 질책할 때에도 비난은 없었다. 조장들이 모여서 요즘 고민사항은 뭔가, 요즘 어떤 일이 있기에 참여도가 저조한가를 물었다. 여기에는 선배와 후배, 초창기 멤버와 나중 멤버 등의 차별은 없었다. 모두가 동등한 자격이었다. 또한 죄를 묻는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정말 친구를 걱정해서 묻는 그런 자리였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다. 시험기간에 학교로 공부하러 오던 다른 아이들이 까탈스럽게 해서 문제가 생기자 먼저 사과를 한 것도 모임의 아이들이었다. 스터디 모임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들만의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가이드라인은 있되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은 대다수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이 넘도록 블로그에서 댓글로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그리고 매 학기 자신들이 이루어낸 결과를 학교에 보고하는 일도 이어졌다. 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닌지라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그냥 모여서 공부하는 것 아니었는가.

2010년이 되면서 초창기 구성원이었던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 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혼자서 참 궁금했다. 와해될까? 아니면 명맥은 이어갈까? 올해가 되면서 아이들은 더 세를 넓혔다. 9개조의 80명이 스터디 모임인데, 열심히 참석하는 아이들은 50명 정도였다.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는 모임이라, 참 재미없을 것 같은 모임이지만 밤11시까지 공부를 할 때보다도 아이들은 더 신나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 스터디 모임 아이들 중 몇 명이 모여서 만든 아이폰 앱이 공모전에서 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도 교사도 없고, 누가 나서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진화하고 있었다. 이 공모전을 위해서 준비할 때 아이들은 참 느렸다. 누군가 나서서 우리 이렇게 하자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일을 스터디 모임 내에서 공모전이나 기타 활동을 허락해야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답답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이런 소모임도 인정을 하자는 결론이 나오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금세 조를 짜더니 며칠 만에 의견을 내고 어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온 몸으로 “저는 진짜 자율학습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몸으로 배우고 실천해나가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추진한다. 선배라고 후배를 몰아 부치거나 욕박지르지도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발전해나가고 애쓴다. 물론 아이들은 실수도 많이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다음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내기도 한다. 이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30대가 되는 그 때가 오면 우리 학교는 달라지지 않을까? 또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발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말들을 기성세대가 한 마디라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이렇게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사뭇 기대가 된다.



## 민주주의 인식 관련 국민의식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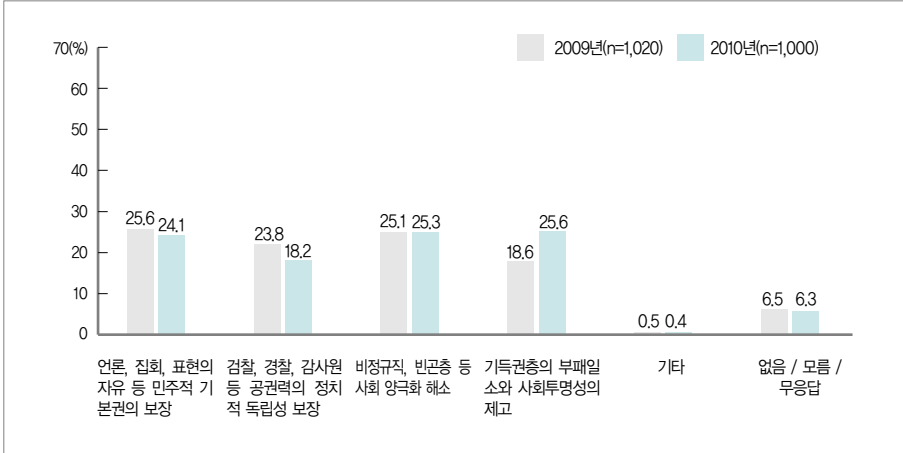
-기득권층의 부패해소와 사회투명성 제고가 민주주의 발전의 으뜸 과제로 떠올라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 '기득권층의 부패해소와 사회투명성 제고',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결'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사업회는 지난달 17일~18일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민주주의 인식 관련 연례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득권층의 부패해소와 사회투명성 제고'가 전년대비 7.0%p 상승한 25.6%로 나타났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은 전년대비 5.6%p 떨어져 18.2%로 나타났다.

응답이 34.6%를 차지한 가운데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32.5%,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27.6%로 조사되었다. 2009년 조사에 비해서는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4.2%p 감소하였고,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3.4%p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새로 조사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인지와 참석을 보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93.7%=알고 있고 참석해 본 적 있음 6.6%+알고 있지만 참석해 본 적 없음 87.1%)과 '1960년 4·19 혁명'(92.7%=알고 있고 참석해 본 적 있음 6.2%+알고 있지만 참석해 본 적 없음 86.4%)이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나,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보다 인지(84.9%)와 참석여부(3.3%)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념행사 참여의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27.3%) > '1960년 4·19혁명'(26.7%) > '1987년 6·10 민주항쟁'(25.2%)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은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년대비 11.6%p 올라간 30.2%로 나타났고,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자 네 명 중 한 명 정도는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석 권유의사는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권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베를린 시민사회 학술토론회



사업회 연구소는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사회 영역화와 기능'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세미나센터에서 국제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베를린자유대학교와 함께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두 번째 학술토론회이며, 체제변환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민주화와 통일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열렸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한국과 유럽의 발표자들이 함께 세션을 구성하여 교차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우선 기초연설에 나선 함세웅 이사장은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자전적인 경험과 바람을 진솔하게 발표했다. 이어 정근식 연구소장, 신진욱 중앙대 교수,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형성과정,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양태, 정책생산과정을 주제로 발표를, 디터 제거트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는 동유럽의 허약한 시민사회, 도로테 드뇌브 독일 하겐대 교수

는 후기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사회의 역할확장과 영역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근식 연구소장은 “지난해에 비해 사례와 이론이 보다 전문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학술토론회 발표문은 토론된 내용을 반영한 심화연구를 거쳐 2011년에 독일에서 영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 민주주의간담회 열려



지난달 27일(화) 사업회 연구소는 사업회 대회의실에 “권위주의 아래에서 형성된 성장지향형 국가는

시장개방과 민주화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압축적 성장을 이룬 한국사회는 과거와는 어떤 차별화된 방식으로 변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비판사회학회와 함께 소규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인화(홍콩 침례대학교)교수의 “한국의 발전국가에 대한 세계화와 민주화의 도전(Challenges of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o Korea's Developmental State: tentative observations)” 주제발표와 정철희(전북대)교수의 사회, 정근식(연구소장), 조희연(성공회대), 권영숙(서울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사회운동과정치연구회가 주관했다.

# 사업회 소식

## 🌀 선생님에게 행복한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습을

-민주시민교육 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이열치열 여름나기



사업회는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21일부터 3일간 민주시민교육원에서 부산, 경남지역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를 진행했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풀어볼까?’란 제목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는 극단 자갈치의 배우를 모셔 몸과 마음을 여는 과정을 시작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핀란드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동아리 운영과 학급운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학교에서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결정 방법을 살펴보고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자기비전을 찾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해답들을 찾아갈 수 있어 좋았지만 더 많은 교사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사업회는 “선생님에게 행복한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습을!” 목표로 여름방학동안 민주시민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4회 더 진행한다.

- ▶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학교’  
7. 27(화) ~ 28(수) 봉도청소년수련원
- ▶ 미국시민교육센터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유 도서로 개발한 정의, 책임 저자들과 함께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 - 정의’  
7. 29(목) ~ 30(금) 서울유스호스텔
- ▶ ‘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 - 책임과 정의’  
8. 3(화) ~ 4(수) 서울유스호스텔
- ▶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인 관계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실 속 살아있는 민주주의’ 8. 19(목) ~ 20(금)

자세한 일정 및 참가신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cracy.com/](http://www.kdemocracy.com/) 02-3709-7624)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④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와 '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4월혁명 제5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사업회 연구소와 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가 지난달 9일(금) 한국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논리와 지향성의 재평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 학술회의는 본 사업회 연구소가 4월혁명 제5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20여 개의 학술행사를 가운데 하나이다. 학술회의는 오전의 제1부와 오후의 제2부로 구성되었는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저항적 재구성’과 ‘민중론과 개혁, 변혁 구상’이라는 소주제로 각각 4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제1부와 제2부 사이에는 가톨릭대학교 안병욱 교수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인식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발표 논문들이 식민지시대부터 1980년대까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각 주제들은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회의를 주최한 두 기관은 토론의 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가 높은 연구들을 수록한 단행본을 발간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 ④ 이덕문선생님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도서관에 사업회 발간 도서 기증

사업회가 주최한 2004년 “해외민주인사초청행사”에 함께 했던 미국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Grace Weiner(한국명 이덕문)선생님이 사업회에 성금을 기탁하면서,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밀러 도서관에 사업회 발간 도서 등 244권을 기증했다고 알려졌다.

## ④ 인도네시아 부통령실 비서관 사업회 방문



지난달 5일 오후에 인도네시아 부통령실 정무 차석 비서관(Deputy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Vice President Office) 조헤르만샤 조한(Mr. Djohermansyah Djohan) 등 인도네시아 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관계자 7명이 사업회를 방문해 유영표 상임부이사장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가 보관된 서고 시설을 둘러 보았다. 이어서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설명한 DVD를 보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④ 제3차 전국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워크숍 열려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된 6월민주항쟁 23주년 기념사업 평가를 위한 기념계승단체 워크숍(실무자회의)이 지난달 1, 2일 이틀간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렸다. 서울, 부산, 대전, 안산, 목포 등 11개 지역 14개 단체 사무국장급 실무자 23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시민견기대회 등 6월민주항쟁 기념 35개 지역행사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식회의 종료 후에는 서귀포 올레 탐방 등 지역간 교류를 증진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제4차 워크숍은 11월 중에 개최기로 했다.